

광주·전남 내년 국고 어디에 얼마나 지원되나

영산강 살리기 집중, 문화전당은 삭감

광주, 132건에 2조1,891억 '2조원 시대'

광주시가 내년도 국고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28일 광주시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총 132건, 2조1천891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도 국비지원 액수 1조6천492억원보다 32.7%(5천399억원)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 사상 최대 액수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은 영산강 살리기 하천정비 1천581억원, 지역산업기반 IT 융합기술 생산지원 기반구축 150억원, 광융합 기술기반 그린 IT 도시 모델 실험사업 100억원,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 활동과 영산강 지류 5대 친수공간 조성 각 50억원, 시립민속박물관 시설 확충 20억원,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과 산업을 레이저 핵심 모듈 국산화 지원, 전남대 동아시아 녹색성장 교육센터 건립 8억원 등 내년도 신규 사업 총 30건에 2천211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주요 계속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9천519억원(국토부·철도시설관리공단 사업비 포함), 국가지원 지방도 제49호선 개설 258억원, 국립 광주과학관 건립 180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49억원, 퇴행성 질환 전문재활병원 건립 80억원, 오염 총량관리 하수 관거 정비 76억원, 가전로봇 특화 육성사업 74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65억원, 일곡-용진 혼잡도로 확장 45억원, 양립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40억원 등 내년도 계속사업 총 102건에 1조9천68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별관 논란으로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가 7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인프라 부문에서는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당초 4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축소·반영됐다.

특히,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광주R&D특구 지정과 관련, 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당초 기재부에서는 특구 지정 이후에 국비 반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용섭 의원이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 측에 강력하게 요구,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내년 국비 2조원 시대를 열게됨에 따라 광주의 미래 비전인 첨단·문화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게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측 방문단과 재북 가족이 만난 추석 1차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인 28일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에서 남측 가족들이 떠나는 버스 창문 사이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고 있다.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북측 방문단 99명이 금강산에서 재남가족과 만나는 2차 상봉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J프로젝트 진입도로 개설(100억 원)과 광양민권 외곽순환도로 개설(100억 원), 여수공항 확장(200억 원), 무안공항 확장(200억 원), 다도해 크루즈 전용부두 조성(200억 원), 압해~화원 간 연결도로(100억 원),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200억 원)사업 등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부처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남도는 이들 주요 추진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홍경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박람회 대비 절반 이상이 SOC 예산

전남도는 28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서 지난해보다 9천억 원이 증가한 6조2천2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F1경주장 건설과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일부 핵심 사업의 예산이 정부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사업 추진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전남도가 28일 발표한 '2010년도 국고건의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상황 보고'에 따르면 전남도 사업은 총 486건에 6조2천263억 원이 내년도 국고에 반영됐다. 이 가운데 SOC분야는 3조3천8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반영액의 54%를 차지함으로써 2012연수세 계박람회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미래산업 육성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부처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고속도로 3개 노선(전주~광양, 목포~광양, 광주~완도)에 7천239억 원, 철도건설

분야 6개 사업(호남고속철, 전라선 복선전철화, 진주~광양, 동순천~광양 복선화) 등 1조2천607억 원이다.

또 연륙·연도교(압해~압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여수~고흥, 돌산~화태, 소록~거금, 신지~고금) 건설 분야에는 총 1천150억 원, 국도 확·포장 사업 21개 지구에 2천70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여수세계박람회 주변 SOC 사업에 1조2천209억 원, 문화관광체육사업 1천616억 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 425억 원을 비롯,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예산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F1대회 경주장 건설 비용 중 정부 부담액 880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으며 F1대회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산인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 관련 280억원과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0억 원도 정부예산에서 제외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엔평란 駐광주 총영사

“한·중 동북아 번영 이끌 동반자 무안 한·중산단 中 정부 큰 관심”

인터뷰=박치경 정치부장

오는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건국 60주년을 맞는다. 근대 격동기 서방 외세와 일본제국주의 침탈에 신음하던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과 국·공 내전 등 고단한 과정을 통해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신중국'을 세웠다.

이후 60년동안 중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광주·전남·북, 제주를 주활동무대로 하는 엔평란(鵬鳳蘭) 주 광주 총영영사를 만나 한·중 관계의 미래 방향과 호남지역과의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엔 총영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주북한 중국대사관과 한국에서 다년간 근무해 유창한 우리말로 인터뷰에 응했다.

- 동북아시아에서 한·중관계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 두 나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짧은 시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신의와 경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더 밀접하게 될 것이다. 양국관계의 발전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동북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광주·전남 등 호남지방은 중국과 가까이 교류협력에 이점이 많다.

▲ 중국도 한국의 호남지방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에 이어 최근 광주에 총영사관 문을 연 것이다. (호남이)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비해서는 무역이나 유학 등 교류협력이 뒤지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호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지역민의 순수한 마음씨 등에 중국인들은 호감을 갖고 있다.

- 호남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나.

▲ 호남지방은 중국에서 경제가 발달한 산둥(山東)이나 쑤저양(浙江) 등과 가까이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무안의 한중국제 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도 이곳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원방향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다. 호남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정부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

- 호남이 중국과 가깝지만 다른 지역 에 비해 중국인 방문객은 많지 않다.

▲ 광주·전남지역에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유명 관광지의 홈페이지에 자세한 중국어 설명이 없는 게 아쉽다. 유학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에 익숙한 중국인이 적어 광주·전남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중국을 오가는 전세계 항공편이 자주 끊겨 방문객들이 불편해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국어 설명을 보강하고, 무안을 오가는 항공편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면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생각한다.

-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에서 중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총영사관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광주 감대중간벤치센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갖는 엔 총영사는 "모두 추석을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World's Best Brand). The ad features a night cityscape with a large illuminated sign that reads '세계보청기! 세계브랜드의 자부심을 세우다!' (World's Best Hearing Aid! Establish the pride of the world's best brand!). Below the main text, there are smaller images of hearing aids and promotional information, including a phone number '1588-0400/060-722-0100' and a website 'www.segi.co.kr'.